



사서, 그 아름다운 이름에 감성을 입히다

— 지식·정보·문화의 중개인 사서, 감성으로 소통하기 —

글 | 정 효 숙
양주시남면도서관 팀장
jhs4533@kg21.net

사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

열매 맺는 것들의 부지런한 노동이 시작되었다.

연두빛 살랑이는 잎새 하나에도 화사한 꽃으로 제 모양을 자랑하는 자태도 한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여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하고 꽃피웠으리라. 필자가 갖는 도서관에 대한 열정 또한 언젠가는 저들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어보며 필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어느 도서관의 이름 모를 사서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음이다.

고대와 근대의 "도서관"이라는 건물은 특정 귀족의 부의 상징 혹은 지식을 독점하려는 자들의 과시욕의 대상이었다. 사서의 역할은 특권층을 위해 지식을 소유하고 보존하며 전사(轉寫)했던 지킴이었다. 도서관도 시대를 거듭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관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모습과 역할도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성과사회에서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개방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도 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소도시의 도서관 사서는 책을 다독하며 지적인 사치를 부리는 상상은 금물이다. 고도의 지식을 축적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제전문사서는 그만두고라도 내가 하는 업무 중 한 분야라도 집중할라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하게 손길을 기다린다. 한 두명의 사서가 전 업무를 맡다보니 설핏 알고 지나가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어디

그런 형편이 우리 도서관만의 일이겠는가.

도서관의 특성(관종별)에 따라 하루에도 쉽지가 않지만 많은 책들을 선별하여 분류하고 배가해야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웹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들은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갱신하여야만 한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정보제공을 해야 함은 물론 그들이 원하는 미래 트렌드를 사전에 파악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책으로 풀어나가는 문화프로그램도 끊임없이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미디어와 IT분야의 다양한 콘텐츠의 흐름을 예측해야 한다.

책 읽는 양주, 새로운 비상을 꿈꾸다

내가 근무하는 양주시는 인구 20만의 도농복합도시로 공공도서관 4개와 공립작은도서관 2개, 사립작은도서관이 40여개가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 회암사지와 관아지 등 유·무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아트도시, 교육도시이다.

양주시는 2012년부터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전시민의 책 읽기 사업'으로 책의 페이지를 마라톤 킬로수로 환산하여 누적페이지가 완성되면 완주메달과 인증서를 수여하는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독서마라톤은 첫째 5,000명 완주하였고 올해는 독서마라톤 신청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한 책을 선정하여 전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여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은 2012년 '가족입니까'와 '두근 두근 내 인생'을 시작으로 올해는 '정범기 추락사건'을 한 책으로 선정하여 토론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스쿨북 릴레이' 도서로 '시간가계' 선정하여 학생들과 함께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영·유아기부터 '책과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가가 함께 친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도서관을 통하여 놀이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전 시민이 책 잔치에 참여하는 북페스티벌은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독서마라톤, 한 도시 한 책 읽기 토론단체 시상식과 작은도서관만의 특징을 살린 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양주시의 책 읽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독서 잔치였다. 이렇게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양주시는 전 시민이 창조시민, 감성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독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제 시민의 독서능력향상과 지식정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놀이와 예술과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지식 공작소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도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전달자로서 사서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도 한다.

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2개의 도서관 개

관작업을 했다. 도서관 건물이 외형을 갖추면 그 안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3만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하는 일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서가배치와 전산시스템 설치, 건축에 반영되지 않았던 인테리어를 구성하여 내부의 색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 업무를 진행할 때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하는 일은 이용자의 입장이다. 때로는 개인적 편견이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만일 도서관을 방문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한결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산재한 군부대가 있어 병영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었다. 청년들의 군 입대의 문제가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음을 부대 시설을 보고 깨달았다. 자유로운 사고와 그동안 누렸을 문화생활을 모두 접고 똑같은 생활방식과 규격화된 그곳에서 이들이 목말라 했던 것은 문화향유 기회였을 것이다. 문화의 부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이곳에서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카페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곡선 형태의 의자와 책상을 배치하고 아트벽돌과 벽화를 활용한 벽면구성으로 카페 풍경을 재현해보고자 하였다. 군사정보들과 함께 진열되었던 바랜 책들이 사라지고 취업과 취미, 교양과 스포츠, 컴퓨터와 각종 자격증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비치하였다. 상상과 지식충전 장소, 병영도서관을 이용하는 장병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는다.

사서의 감성,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보석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지식정보의 격차이다.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오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를 어떻게 도서관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지역협력을 위한 첫 사업으로 위스타트 센터의 저소득층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도서관 오는 날을 정하여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았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진행한 결과 어린이들의 독서량이 현격하게 늘어났는데 센터의 담당자는 이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10 공공도서관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육원 2개소와 위스타트센터 2개소의 어린이 180명을 대상으로 독서상담과 마술동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던 어린이가 마술동화 프로그램에서 마술도구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신감을 찾기도 하고, 마술사가 꿈인 어린이도 생겼다. 보육원에도 위스타트 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생겼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간을 대출해 주었다. 책을 통하여 마음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 보육원 어린이들, 그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감사선생님 덕에 웃음을 찾은 아이들이 많아졌다.

지역주민들을 도서관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주변여건을 파악해 보아야한다. 연령층, 직업, 성별, 학력, 교통, 도서관과의 거리, 주거파악 등 도서관마다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흡수하는데 한층 수월하다. 주변에 군부대가 많

은 이점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모아 28사단의 장병선생님들과 함께 영어와 수학과목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진행하고 있는데 어렵게만 느껴졌던 군인선생님들은 이 지역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엄한 선생님이 되기도 하며 때론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한다. 군인선생님들은 병영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방과 후 선생님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마을의 이장과 도서관과 군부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사례는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양주시내 군부대와 6개의 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를 운영할 수 있는 수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인근 부대 부적응 장병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독서치료를 진행하였는데 몇 번의 자살시도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 채 위태롭게 군 생활을 유지하는 장병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일어서보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농촌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동화와 함께 하는 문해교육은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한 글자씩 익힐 때마다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쁜 글씨를 사진 찍어 전시해드리겠다는 약속도 해두었다.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문학 작가와 철학자, 전문분야의 학자들을 만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털어놓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 책을 읽혀줄까를 고민하면서 독서회를 시작했다가 어느새 그림책 전문가가 된 독서회 어머니를 보면 필자는 또 그분들의 업적이 마치 내가 이론 양 흐뭇해하는 병이 도진다. 어찌 보람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하는 일

2010년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한 독서도우미 파견 사업을 31개 시·군에서 진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어르신들에게 교육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 사업은 그해 12명을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여 호평을 받았다. 더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고 싶은 욕심에 또 12명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20명이 접수하여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험평가를 통하여 12명이 선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모두 위탁업체에서 진행하였다. 시험에서 탈락하신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평가로 탈락했으니 불공정한 사항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이모작을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시험의 당락은 수업참가와 평가로 결정되었는데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에게는 변명으로도 들렸을 것이다. 그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의 6개월은 필자에게 6개월이 아니라 6년이였다. 일에 대한 회의로 거의 2년이라는 슬럼프를 견뎌야 했다. 아팠던 기억도 세월 속에서 점점 무디어져 간다.

새로운 일의 시도로 인하여 변화해 가는 주민들을 보면서 마냥 행복하고 흐뭇했었다. 필자에게

일은 노동이 아니라 즐기는 습관이 있었기에 마냥 흥에 취할 것이 아니라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넌어야 하는 세심함도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버들강아지, 개나리, 벚꽃, 진달래, 철쭉과 수수꽃다리, 연이어 피어나는 꽃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목에 집중시키지만 돌 틈에서 뽀족하게 고개 내민 키 작은 민들레는 그저 주어진 생애를 꽃피울 뿐이다. 누가 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돌 틈에서 척박한 생애를 꾸려나가는 민들레처럼 도서관은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주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보듬어 주어야 한다.

도서관은 '영혼의 치유소'이다. 지역주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주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 그들의 고민을 들어 주는 일,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면서 안부를 여쭙는 일부터 도서관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일,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 무수한 변화의 물결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지식의 등대가 되어주는 사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감성과 배려를 마음껏 충전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감성의 동물이다. 따뜻함은 모든 문을 열리게 하는 치료약이다. ㉞

'영혼의 치유소' 도서관

정효숙

따스한 봄볕에 기지개를 켜며
게으른 동면을 훌훌 털어내고
부스스 햇살속에서 노동을 시작하는 일

씩을 띄우고
꽃을 피우는 사소한 시간들 사이로
바람은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일어
투명했던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때
내 머리위에 놓인
갑각류의 등껍질처럼 견고한 무게를
성금 성금 걸어와
지식의 손으로 걸어내면
굳었던 몸에서
동맥을 따라 인식이 휘돌고

그 동력으로
감성을 만끽하며
행복할 수 있는 자유

의무와 책임과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비로소
내 생각에 비내리는
'영혼의 치유소' 도서관

